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한라산 숲학교 (6)신산중학교

천미천 걸으며 절정 치닫는 가을 속으로...

사려니숲서 가을경치 만끽
학에서 하천 강의 귀에 '쑉'
"교실 밖 색다른 교육 행복"

"여러분 숲을 걸을 때는 발 밑에 무엇이 있나 잘 살펴봐야 해요"

김완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알뜰'을 드러낸 민달팽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자 아이들이 금세 김 연구사 주위를 둘러쌌다. 김 연구사는 "이렇게 숲에는 여러 곤충, 동물들이 살고 있다"며 "무턱대고 건다간 이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 발밑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조천읍 사려니숲길에서 신산중학교 2·3학년 학생·교사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와 함께하는 숲 학교'가 진행됐다.

가을의 마지막 문턱에서 사려니숲길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다. 숲은 교실 밖을 벗어난 아이들에게 절정의 가을 경치를 선물했다. 이날 숲 학교는 천미천 계곡을 따



신산중학교 학생 20여명이 사려니숲길을 찾아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상민기자

라 숲길을 걷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천미천은 제주시 조천읍 한라산 동쪽에서 시작해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면 쪽 바다로 이어지는 총 길이 25km의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김 연구사가 "이 하천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한 학생이 짹짹 "천미천"이라고 답했다. 곧이어 김 연구사의 하천 강의가 시작됐다. 김 연구사는 "천미천처럼 크고 작은 하천이 제주에는 140개가 있다"면서 "제주의 대다수 하천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인데, 제주가 화

산섬이다보니 하천을 흐르던 물들이 이내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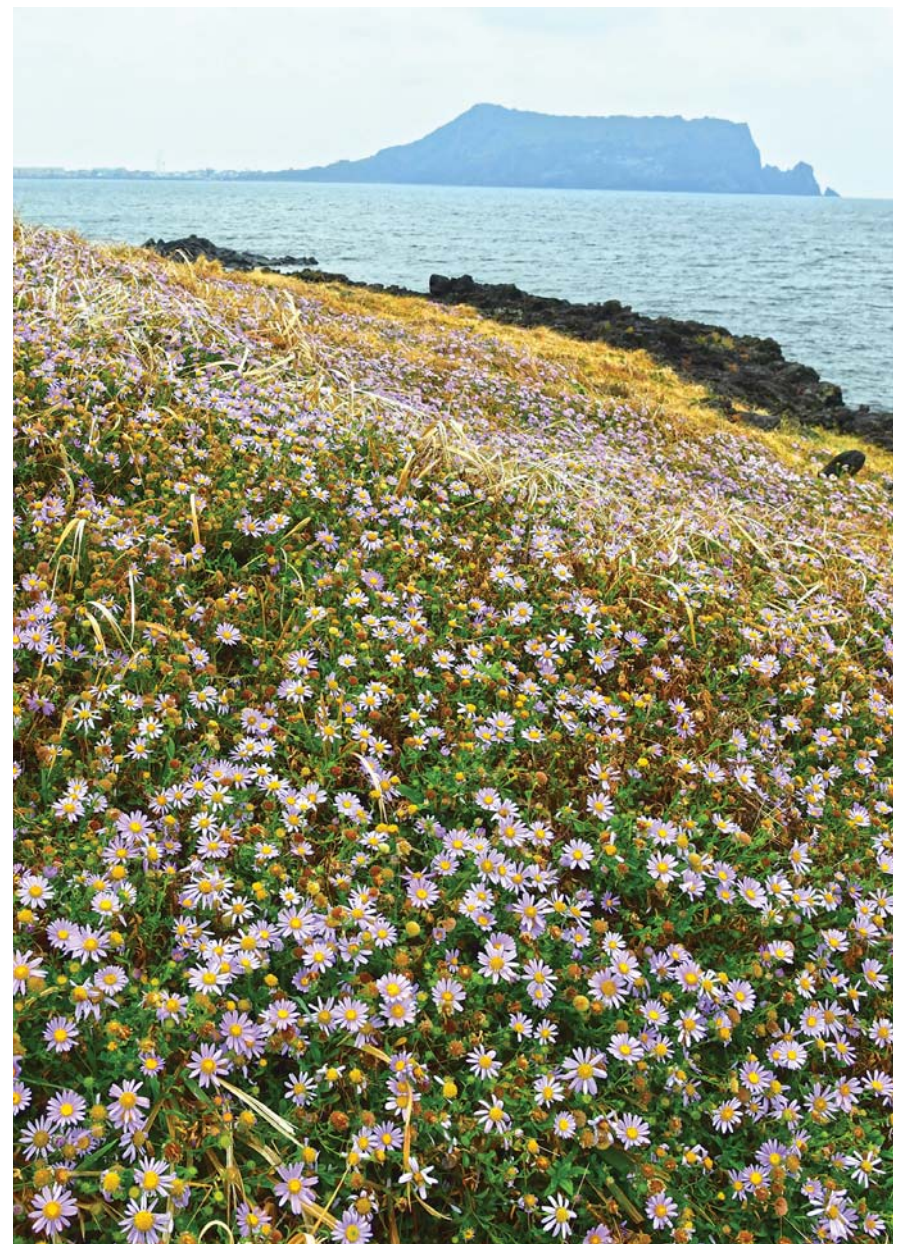
이어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원뿔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만약 제주 하천에 이런 지질학적 특수성이 없었다면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지 않고) 모두 바다로 흘러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제주의 하천이 있어 우리가 물을 먹고 살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미천을 걷다 만나는 모든 동식물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소재다.

김 연구사가 손으로 가르킨 나무 위에 큰부리까마귀가 자리를 잡고 쉬고 있다. 김 연구사의 입에서 큰부리까마귀가 제주지역 텃새라는 설명과 함께 '반포지효(反哺之孝)'의 유래가 뒤따랐다. 반포지효는 홍조라는 까마귀도 자란 뒤에는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이야기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 연구사는 사실은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어미 까마귀가 자신의 새끼에 입으로 먹이를 넣어주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반대로 빚대 반포지효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약의 재료로 쓰였다는 천남성 이야기 등 살아 있는 교육이 아이들의 귀에 속속 박혔다.

정민이 학생(신산중 3학년)은 "오랜만에 가을 풍경을 보며 현장체험 학습을 해 힐링했다"고 웃어보였다.

제자들과 함께 숲학교에 참가한 김평수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현장체험학습을 못했었다"며 "오래 만에 교실 밖을 하천을 걷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갯속부쟁이 2일 서귀포시 성산을 신양리 섭지코지 해안 갯속부쟁이가 활짝 피어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멸종위기 1급 '매' 18쌍 서식 확인

도민속자연사박물관 보고서

도내 해안 절벽에서 조류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라 할 수 있는 '매' 총 18쌍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

2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따르면 올해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확인된 매의 보금자리인 수월봉을 비롯해 일출봉, 섭지코지 등 수성화산체와 갯각, 돛배낭골, 형제섬 등 수성절리대가 발달한 곳이다.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1급인 매는 해안절벽에서 번식하는 텃새이다. 제주지역은 절세의 이동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맹금류의 이동경로, 번식유무, 개체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올해 도내 주요 해안절벽 24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는 최소



18쌍이 번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도내에 서식하는 매의 번식 과정과 24개소의 번식지, 맹금류 27종의 분포와 습성 등 총 450컷의 생태사진이 담긴 '제주 바다를 누비는 매' 책자를 발간했다. 문의 710-7704. 이태윤기자

교통안전 위협 행위 경찰 연말까지 단속

경찰청은 자동차 불법 개조 등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이뤄지며, 주요 단속 사항은 ▷자동차 불법개조·폭주 레이싱 ▷속도제한 장치 불법해제 ▷난폭·보복 운전 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자동차를 불법개조한 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는 관계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행위자의 경우엔 구속수사도 검토한다.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a@ihalla.com

"제2의 헌마공신 김만일을 찾습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와 헌마공신김만일기념사업회(이사장 김부일)는 2일부터 20일까지 '제4회 헌마공신 김만일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만일은 조선시대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나라의 국력이 피폐해지자 본인이 육성한 마필 수천마리를 군마용으로 헌상해 임금으로부터 헌마공신이라는 칭호와 함께 종1품인 승정대부의 품계를 받은 제주의 대표적 위인이다.

김만일상은 이러한 김만일의 국난극복에 기여한 애국정신과 말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제정·수여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말산업 발전과 전통 마문화 계승에 기여한 대한민국 개인이나 단체는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수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문의 755-754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섬 오늘부터 이틀간 반짝 추위

기상청 "북서쪽서 찬 공기 남하" 강한바람에 체감기는 더 떨어져

오늘부터 이틀간 제주에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제주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2~3℃ 낮을 11~13℃, 낮 최고기온은 1~2℃ 하락한 15~17℃로 예상됐다.

4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11℃, 낮 최고기온은 14~17℃로 전망됐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을 9℃ 내외로 예보됐다.

특히 한라산 정상부근은 이틀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이 날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3일부터 4일까지 바람이 초속 9~13m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비닐하우스, 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강한 바람에 해상에도 물결이 2~4m 높이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OPEN DAY 11월 7일

HD

현대차량관리 1급 공업사

보험 및 일반사고차량 수리·판금도장 도색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11월 7일 현대차량관리 1급 공업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동차를 맡겨만 주시면 그동안 쌓아왔던 30년 자동차 정비 경력 노하우와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님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환 및 화분은 사절합니다.
대신 쌀화환으로 축하해주시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겠습니다.

대표 **강정수, 진수미**
전무이사 **이문숙** 배상
(공장장) 010-2691-3544

TEL 064)725-2336

FAX 064)725-2337

H.P 010-2691-6362, 010-3674-8878